

전시장 들어서니, 질푸른 폭포가 쏟아졌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송필용-청류'展을 가다

1998년 금강산 찾은후 물의 세계에 빠져

“물방울이 바위를 깎듯 일상이 쌓여 삶 이뤄”

10월 11일까지 폭포·바다 그림 63점 전시



‘청류(清流)’

11일 오랜만에 반가운 단비가 찾아왔다. 광주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지붕을 타고 흘러내린 비는 컷가에 경쾌한 리듬을 선물했다. 전시장 안에서는 더 큰 물줄기가 청아함을 선물하고 있었다.

상록전시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송필용-청류(清流)’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이 해마다 두드러진 작업역량으로 지역미술계의 중심을 이룬 작가를 선정·초대하는 중견작가초대전으로, 오는 10월11일까지 열린다. 전시에는 송 작가의 폭포와 바다 그림 63점이 전시되고 있다.

굽직한 바위를 때려 대는 폭포 물줄기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전시장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푸른색과 흰색으로 시각화된 폭포는 끈기 떨어졌다가 다시 바위에 튀겨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물의 화가’ 송필용 작가의 ‘청류’ 연작은 거침없는 붓질과 흐르는 물감이 영겨 붙은 화면으로 무서운 기세의 폭포를 마주하게 한다. 구체적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작가적 사유가 담긴 폭포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관람객을 사유의 공간으로 이끈다. 전시장 중앙에 서자 폭포 한가운데서 물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수적석천(水滴石穿), 폭포 물줄기는 한 방울씩 떨어져 바위를 깎고 있었다. 그러면서 거칠었던 바위는 어느덧 모반 부분을 버렸다.

송 작가는 “우리의 일상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쌓이면서 삶을 이루는 것도 폭포와 같다”고 말했다.

한쪽 전시장에는 옥빛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물에는 푸른색과 흰색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색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층 전시실 중앙에는 바다가 펼쳐졌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작가의 바다는 검은 물이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의 바다. 파도가 관람객을 삼킬 것만 같은 검은빛이었다. 작품 속 바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듯했다. “딱딱하게 막힌 가슴의 바다”라는 게 송 작가의 말이다.

검은 바다는 다시 푸른 생명의 바다로 피어올랐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묘묘한 희망의 푸르름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겼다.

고흥이 고향인 작가는 전남대 4학년 재학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암울한 현실을 마주했다. 국토 답사를 통해 땅 위에 스러져간 사람들의 삶을 반추하며 질곡의 현대사를 더듬었다.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 등 조선 후기부터 5·18까지 100년 역사의 흐름을 16m에 달하는 캔버스에 엮은 작품 ‘땅의 역사’(1989·광주시립미술관 소장)를 내놓았다. 송 작가의 마지막 민중 미술 계열 작품이기도 하다.

“90년대 들어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

요. 그래서 담양에 동지를 틀었죠. 그때부터 다시 땅의 역사를 찾기 시작했고, 그 근원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등을 주로 그렸어요. 1998년 금강산 문이 열리고 금강산수를 그리면서 더 물의 의미에 대해 고민 했어요. 땅과 산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신비한 기운을 품은 금강산이 저를 물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송 작가는 그동안 20여차례 금강산을 다녀왔다. 쪽빛과 옥빛의 금강산 물이 그의 마음을 물로 잠기게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내놓은 작품이 ‘몽유금강’ ‘금강옥류’ 등이다.

본격적으로 물을 그린 것은 지난 2003년이다. 고향인 고흥 바다의 기억과 닿았던 모양이다.

“전국의 폭포를 수차례 찾아다녔어요. 초창기에는 사실을 묘사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붓질이 추상적으로 흘러가더군요. 물은 그 자체로 생명을 품은 존재이자 창조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근간이기도 하고, 동양 사람들에게는 사유의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로만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남도의 정신세계와 물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송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홍익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이화익갤러리 등 20여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문의 062-613-539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민속문화재 제 1호 양림동 이장우 가옥.

양림동 출신 정추·정근 형제 추모 음악회

‘순수’ 14일 이장우 가옥서

뮤지션 최고은 등 출연

15일 호랑나무서 아트마켓도



최고은

문화 그룹 ‘순수’는 우월순 사택 앞 광장, 오원 기념각 등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역사적인 공간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순수’는 오는 14일(오후 7시 30분) 양림동의 대표적 건축문화유산인 이장우 가옥에서 ‘제2회 정추음악회-그리다 말을 할까하니 그리워’를 진행한다. 제작년 타계한 양림동 출신 음악가 정추(1923~2013)와 올해 별세한 동료 작곡가 정근(1930~2015) 형제를 기리는 음악회다.

정추 선생은 차이콥스키 음악원 졸업 작품으로 학교 역사상 최초 만점을 받은 ‘조국’을 작곡한 후 ‘검은 머리의 차이콥스키’란 별명을 얻었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의 구전 가요를 1000여곡 넘게 채록한 그는 관현악곡과 실내악곡, 칸타타 등 300여곡을 작곡했다.

동생 정근은 ‘등글개 등글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등의 동요 작곡가로 유명하다. KBS ‘모이자 노래하자’의 작가, KBS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았었다.

공연이 열리는 이장우 가옥은 1899년에 정병호가 축조한 것으로 광주시 민속문화재 제 1호로 지

정돼 있다. 사랑채, 행랑채, 안채, 뒷마루, 대청 등 조선말 상류층의 전통가옥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으로 과거 정추 선생의 외가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 출신 뮤지션 최고은, 피아니스트 정훈, 바이올리니스트 배하림, 호남신학대학교 음악대학, CBS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다음날인 15일(오후 4시~밤 9시)에는 야시장 프로젝트 ‘100미터 모꼬지 : 열정의 백미’(매달 셋째 주 토요일)가 열린다. 우월순 사택 아래 호랑가시나무언덕에서 열리는 행사로 마켓과 거리 공연 등이 어우러진다.

백열등 불빛 아래 50여팀의 열정 셀러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수공예품, 먹을거리, 팝아트, 캘리그래피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틈틈이 거리공연도 펼쳐진다. 문의 062-651-09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보듬 10000센터’ 설치 협약

KT·이이남 작가와... 빛고을시민문화관에 이달 착공 내달 개관

광주문화재단은 11일 (주)KT,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함께 ‘문화보듬 10000센터’ 설치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문화보듬 10000센터’는 뜻을 함께 한 소액 기부자를 기리는 공간이다. 이 협약에 따라 광주문화재단은 예산 4500만원 투입하고, KT는 3500만원을 기부해 이 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또 이이남

작가는 작품을 재능 기부한다. 문화보듬10000운동은 평범한 시민 1만명이 매월 1만원을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 들어설 문화보듬10000센터는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오는 9월 문을 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대과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를,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금남로, 가림동, 한화생명, 구한미소핑,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 227-7575**